



UV 잉크젯 디지털 라벨기 도입한 ‘아엠스토리’ “Tau330과 함께 새로운 성공스토리 만들 것”

아엠스토리(대표 김희돈)는 최근 ㈜디디피스토리를 통해 DURST사의 UV 잉크젯 라벨 디지털 인쇄기인 Tau330 5C를 도입했다. 라벨, 스티커, 바코드 인쇄 전문업체인 아엠스토리는 Tau330을 통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90년 실크인쇄 업체인 모모그랜드로 사업을 시작한 아엠스토리는 1992년 한국특수인쇄로 한차례 사명을 변경한 후 올해 다시 아엠스토리로 사명을 바꾸고 제 2의 도약을 선언했다. 아 엠 스토 리(AMSTORY)는 A:Ability, M:Make, S:Superb, T:Technic, O:Only, R:Reliable, Y:Y not의 의미를 담은 영어식 표현이다. 더 뛰어난 기술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AM은 아침을 뜻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DURST Tau330 “꿈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장비”

아엠스토리는 지난 1992년 씨링 장비를 설치하고 라벨 스티커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전산사식을 도입하는 한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기획에서 생산납품까지 모든 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이름을 높였다. IMF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2002년 최첨단 6색 간결식 로터리 인쇄기를 도입하는 등 최신 장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김희돈 대표는

“품질 향상, 신속하고 정확한 납기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최신 설비를 끊임없이 도입하는 것은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DURST사의 디지털 UV 잉크젯 라벨 인쇄기인 Tau330을 도입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김희돈 대표는 도입 배경에 대해 “오프셋인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디지털화가 진행됐다. 당시에 제판 작업은 이미 PS판에 필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PS판에 직접 이미징하는 CTP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를 보며 제판과정에서 수지판이나 동판을 쓰지 않고 바로 PS판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가 라벨인쇄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몇년 후 라벨인쇄업계에도 여러 디지털 장비들이 출시됐지만 품질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다. 수년간 많은 회사의 장비들을 검토하고 고민하던 중 DURST의 Tau330을 보고 비로소 생각해 왔던 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상의 장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품종 소량 인쇄에 최적

아엠스토리가 도입한 Tau330은 최신 디지털 UV 잉크젯 기술을 사용해 최대의 신뢰성 및 생산 효율을 보장하며, 다품종 소량의 인쇄에 최적의 성능을 자랑한다. 16.5cm(6.5인치)에서 33cm(13인치)까지의 웹폭을 커버할 수 있으며, 분당 인쇄속도는 최대 48m다. 해상도도 현재 1260dpi(HD)로 업그레이드돼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하다.

아날로그에서 표현할 수 없는 피부톤 그라데이션이라든지 금속재질 부분, 새의 깃털 부분 등의 미세한 표현이 특히 뛰어나다.

김희돈 대표는 “백색 표현은 실크인쇄를 하든 어떤 인쇄를 하든 어떻게 뜨는 면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순수한 백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Tau330의 경우 백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 백색 이외에도 오렌지 및 보라색상을 추가할 수 있는 점도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기존에는 백색, 흑색 그리고 CMYK의 핀 맞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Tau330의 핀 맞춤은 놀라울 정도다. 기존 인쇄는 바탕이 백색일 경우 흑색이 100% 안 나오는 등의 단점이 있었는데 Tau330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Tau330은 또 작업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보안패턴·보안문자 등을 응용해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다.

김희돈 대표는 “아엠스토리는 공정별 품질관리, 무결점 운동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꾸준한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의 Tau330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Tau330 덕분에 고객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Tau330의 특별한 기능외에도 아엠스토리는 디티피스토리로부터 원활한 AS는 물론이고 샘플 프린팅, 테스트 서비스, 직원들의 트레이닝, 대체 장비 백업서비스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작업 가능

‘Tau330’은 디지털 라벨인쇄장비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라벨업계로서는 구동방식이 간편해 누구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희돈 대표는 “아날로그 장비의 경우 로터리도 그렇고 평압식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반면 디지털 인쇄장비는 숙련기간이 불과 2~3주에 불과해 누구든지 기술을 빨리 숙달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디자인부서 전원이 Tau330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Tau330’은 다품종 소량인쇄물을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 김희돈 대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장비는 숙련된 인력도 세팅 과정이 기본적으로 30~40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장비는 세팅 소요 시간이 거의 필요없을 뿐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요구됐던 제판, 핀맞춤 등의 과정이 필요없어



1. 아엠스토리 김희돈 대표 2. 아엠스토리 전경
3. 작동법이 쉬워 디자이너들도 쉽게 가동할 수 있는 Tau330

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출력할 수 있다. 고품질의 출력물을 소량 다품종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Tau330의 도입과 함께 사명을 새롭게 변경하고,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직장으로 변화가고 있다.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가 충만해 있어 회사의 발전을 확신한다”고 자랑했다.

아엠스토리는 이번 디지털 장비 도입을 통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엠스토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9번길 31 3층 (도당동)
전화 | 032-656-2225